

'전북 군산형 일자리' 표창

"마음만은 함께 나눌 수 있는"

2021년 상생형 지역일자리 우수사례... 전국 확산 기여

군산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주최한 2021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에서 '군산형 일자리'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군산형 일자리'는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등 연이은 지역 주력산업 붕괴로 2018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 및 혁신을 도모했다.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미래차라는 신산업 전환과 함께 노사 간, 원하청 간 상생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이다.

전기차 관련 참여기업 5개사가 군산·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총 5,171억원을 신규 투자해 오는 2024년까지 24만



대의 전기차 생산과 1,700여명의 고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군산형 일자리'가 전국에서 네번째로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지정된 이후 6월에 (주)영신 군산공장에서 전기차 1호 다니고밴(소형화물)을 생산 출고했으며, 8월에는 에디슨모터스(주) 군산공장이 준공해 전기버스를 생산하고 있

다. 나머지 기업들도 속속 공장착공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민·정 대표기관 22곳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상생 수준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군산형 일자리'는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상생협의회 구성을 통해 상생협약 이행을 구체화하는 시스템 체계 구축 운영으로 큰 주목을 받아왔다. 또 공급·동료업 노사투쟁경영 참여제도 도입 등 혁신적 노사 상생관계를 만들어가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시는 지역 스스로 일자리 회복 및 미래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전기차 관련 기업의 투자를 도모하고,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는 등 올해까지 양질의 일자리 400여개를 창출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자원봉사자대회 온라인 개최

한 해 동안 실시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가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한 해 동안 수고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와 우수봉사자 시상을 위한 제16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생중계가 실시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봉사자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수상자, 자원봉사자 및 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명은 유튜브 라이브 영상을 시청하며 수상의 기쁨과 서로의 수고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탓에 표창장 등은 사전에 수상자에게

개별 전수제 영상으로 소개됐으며, 군산시장을 비롯한 내빈은 영상으로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영예의 수상자분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대표부재인 우수 자원봉사상 수상자는 봉사상 김영숙 나눔상 임수현 배려상 이정애 배품상 이익순 행복상 김은준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센터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된 상황에도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참여가 있었기에 온정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 올 수 있었다"며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만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 안전한 사회, 안심하는 사회 조성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최고수준 방역강화

익산시, 21일까지 가금 관련 시설·종사자·축산차량 일시 이동 제한 명령

익산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D)의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최고 수준의 방역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서에서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D) 확진 판정됨에 따라 12월 20일까지 가금 관련 시설, 관련 종사자나 축산차량 등의 일시 이동 제한 명령을 발령하고 일제 세척과 소독을 실시 중이다.

특히 6일 만경강 철새도래지 춘포면 일원 야생조류 분변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D)가 검출되자 방역대 내 사육가금에 대한 이

동통제, 검출지 중심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를 위한 통제소설, 진입로마다 현수막·안내판 등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했다.

시는 이에 앞서 이같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11월 초부터 최고 수준의 방역체제로 불안한 상태다.

11월부터 익산시에 진입하는 모든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4개소)에서 소독·소독필증 소지 후 운행토록해 외부로부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단전을 기했다.

초소점검반을 편성 1일 1회 이상

소독약 희석배수, 소독필증 발급, 노면 등결방지제 살포 여부, 근무자 수칙준수 여부 등의 점검과 강추위 대비 초소 근무자 근무요령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내 가금류 사육농가 142호에 대해 음·면·동 전담관 52명을 지정하여 매일 소독 여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농장별 일대일 방역관리 책임제를 시행 중이며 하립, 참프레, 사조 등 계열사 농장 대한 임상예찰, 방역 조치사항 이행 여부 등을 계열사 질병관리팀과 연계 상호 협력 대응하고 있다.

/익산=이특훈 기자

군산 보건소, 찾아가는 노인결핵검진사업 실시

군산시 보건소는 지난 2월부터 11월 까지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와 연계해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결핵검진사업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노인결핵검진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흉부X선검사, 유소견 시 객담검사 등 무료검진을 통해 결핵환자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OECD 가 입국 가운데 1위로 지난해 결핵 신환자 중 49.1%가 만 65세 이상 연령에서 발생했다. 군산의 경우 지난해 결핵 신환자 중 65세 이상이 50.4%로 노년층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노인결핵의 경우 일반적인 결핵 증상인 2주 이상 기침, 가래 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기에 결핵을 인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병원을 찾는

사례가 있어 예방 차원의 결핵검진이 필요하다.

결핵은 기침이나 재채기 또는 대화 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는 질환이므로 결핵 전파방지를 위해 평소 기침 등을 할 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2주 이상 기침, 가래, 발열, 체중감소 등과 같은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종민 보건소장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면역력이 약해 결핵이 쉽게 발병할 수 있지만, 기침 등 일반적인 결핵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1회 결핵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미래비전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익산시는 현장감 있는 정책제안과 전문적 자문으로 익산 미래비전을 제시할 8기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병렬 우석대학교 명예교수)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시는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의 첫 정기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병렬 우석대학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구성해 대학교수, 연구기관 전 시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20여명위원을 위촉했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다문화 청년 분야 지역 전문가 참여 비중을 확대해 과감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의 현실과 상황을 반영한 시책 제안과 정책실험 강화를 도모한다.

이번 회의는 제8기 위원회 출범에 따른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익산시 주요 추진정책, 자문위원 제안사업에 대한 발표와 토론 시장발전 신규정책 자문 순으로 진행됐다.

이병렬 위원장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들은 전국적인 선도사례로 손꼽히

는 지역화폐 디아로움 확대 발행, 나눔공간·기부공간 운영을 통한 위기 가구 지원 등 주요 추진정책 설명에 열린 토론을 이어갔다.

마을자치연금 전국 제1호 마을 출범 등 시민체감형 지원사업부터 익산시 대전환을 향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KIX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익산시의 미래가 걸린 핵심 동력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제시했다.

/익산=이특훈 기자

익산시 여성회관 어울림 축제 개최

익산시가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익산시 송리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서 2021 익산시 여성회관 어울림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 한해 여성회관 교육을 마무리하며 수강생 및 지도강사가 교육을 통해 배운 재능과 작품들을 함께 나누고 즐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미니 전시회로 개최되며 입장 안심품을 활용하고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개최된다.

축제기간 작품전시회는 서예, 캘리그라피, 가구 DIY 등 9개 반 교육생들이

직접 만든 100여 작품들을 소개된다.

한편 익산시 여성회관에서는 2021년 상·하반기 정기 강좌 및 특강 총 78 과목을 운영하며 710명 교육생이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한 해 동안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교육생 여러분과 여성인력양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강사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내년에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특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재난안전 등 특별교부세 21억원 확보

군산시는 2021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역안전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기존 봉안당 만장 도래에 따른 추모관 신축사업에 6억원 ▲1998년 준공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해 보수공사가 시급한 내함수문 우수암거보강공사 8억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지진에 취약했던 송경교(경장동 소재)의 내진보강공사 6억원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개성초 등 5개 초교 도로 앞 스피드디스플레이 설치 1억원 등이다.

강인준 군산시장은 "이번 교부세 확보는 시와 신영대 국회의원단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협조를 통해 얻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현안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모현시립도서관 원데이클래스 진행

익산모현시립도서관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행복한 연말을 선물하기 위한 강화를 마련했다.

도서관은 오는 17·18일 이틀간 크리스마스 원데이클래스 '펠리스 나비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펠리스 나비다' 프로그램은 ▲천연스톤 트레이 ▲마스크메가렌드 ▲악스타블렛 방향제 ▲다육이 테라리움 ▲아크릴 무드등 등 총 6개의 원데이클래스로 구성됐다.

클래스는 성인부터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다양한 소품을 만드는 등 재미있는 활동으로 준비됐다.

수강 신청은 9일 오전 10시부터 익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펠리스 나비다는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라는 의미의 스페인어다"며 "시민들이 성탄을 맞아 모현도서관에서 즐겁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특훈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